이선균 "법쩐, 화려한 액션이 관전포인트"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는 통쾌한 활극

"겁이 나기도 했지만 대본을 읽어보니 힘과 속도감이 있는 굵은 느낌의 장르물이라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이선균)

배우 이선균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맞서는 통쾌한 활극의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관련기사 16면

SBS 드라마 '법쩐'에서 주인공인 헤지펀드 매니저 은용(이선균 분) 역을 맡은 이선균은 지난 6일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장르가 아니었고, 이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은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배역을 맡기 망설여졌다"고 했다.

이선균이 연기한 은용은 사모펀드 '체인지'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투자 총괄 책임자. 몽골에 은거하며 거액을 투자하는 고객들 앞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버는 삶을 살던 은용은 고향에서 들려온 뜻밖의 소문을 접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건 복수를 시작한다.

이선균은 "초반에는 은용이 마치 판타지 속 영웅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영웅적인 설정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걷어냈고, 시청자분들께서 몰입할 수 있도록 '인간미'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문채원·이선균

이선균은 작품의 관전 포인트로 화려한 액션을 꼽았다.

"6부까지는 회차마다 큰 액션신을 소화해야 했는데 이제 더는 신체 회복이 빠른 나이가 아니라서 걱정도, 부담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선균은 "드라마 특성상 영화를 찍을 때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액션을 연습하지는 못했지만, 액션팀 스태프들이 설계를 너무 잘 해줘서 그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은용과 함께 손잡고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박준경 역은 문채원이 맡았다.

검사 출신 육군 법무관인 박준경 소령은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은용과 힘을 합친다.

'법쩐'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여왕의 교실' 등을 집필한 김원석 작가가 극본을 맡고, 영화 '악인전'을 만든 이원태 감독이 첫 드라마 연출을 맡은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오늘의 포토

"산천어야 나와라"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2023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막일인 지난 7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축제장 일원에서 어린이 관광객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물마루

설 연휴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 수송 지원

해운·항만 특별상황실 설치

○…제주도가 설 연휴기간에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 수송과 해상물류 운송지원 등 항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항만 현장에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

특별대책 상황실에서는 해양수산관리단, 해경, 해운조합 등 기관·단체들이 함께 귀성객과 관광객 등 항만 입도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지원하고, 항만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

도 관계자는 "항만 운영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만시설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등 설 연휴기간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언.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한전 노사갈등 중재 촉구

○…한국전력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제주지역 배전노동자들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은 실질적인 사용주인 만큼 노사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중재해야 한다"고 요구.

이들은 "2만V 특고압에서 작업하는 배전노동자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단체협약 체결 요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배전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과 육지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최소치라도 인상하라는 것"이라며 "노사 교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내 노동관계기관, 지자체, 시만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오늘의 고사성어

破天荒 <파천황>

● 破 : 깨트릴 파 ● 天 : 하늘 천 ● 荒 : 거칠 황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이룸.

당나라 때 '형주'라는 지역은 매우 낙후된 곳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시험 합격자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형주 지역은 천황(天荒) 즉 하늘이 내린 황무지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다 어느날 '유세'란 인물이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천황을 처음으로 깨트렸다며 유세를 가리켜 파천황(破天荒)이라 불렀다.

날씨와 생활 1월 9일 월요일

해뜸 07:39 해짐 17:43 달뜸 19:41 달짐 09:22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생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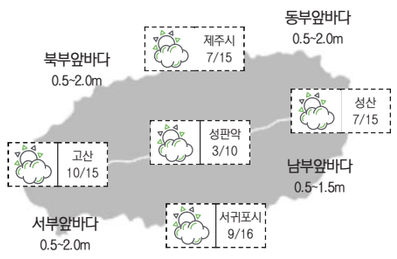
빨래 70	외출 90
세차 80	우산 20

물때

간조 06:03 18:59	만조 12:28 --:--

내일날씨

구름 많음	
제주시	4/14
서귀포시	6/15
성산	3/14
고산	5/13
한라산	-1/7



www.weatheri.co.kr 제공 ☞ 날씨 문의:국번없이 131

역사 속 오늘

'업무상과실사상죄의 특별처벌법' 시초

◈1953년 1월 9일= 1953년 1월 9일 전남 여수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서남쪽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했다. 승선 인원 중 선장과 선원 3명 학생 2명 군인 2명을 제외하고 300여 명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 전남 여수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대동상선 소속의 150t급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서남쪽 8㎞쯤 지점에 있는 다대포 앞바다 거북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면서 20~30분 만에 침몰했다. 당시 창경호는 승객 200여 명과 쌀 450가마를 싣고 있었으나 선장과 선원 3명, 승객 3명만이 구조됐다고 보도됐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생존자가 있음이 알려져 생존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1953년 1월 12일 국회에 창경호 침몰 사고가 안건으로 긴급 상정됐으며, 13일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의됐다. 사고의 충격으로, 대형 인명사고 시 운수업자와 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기관에 대한 벌금을 이전의 250배로 올리고 3년 이하의 금고였던 형량을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업무상과실사상죄의 특별처벌법'의 초안이 법무부서에서 작성되기도 했다.

침몰 전 창경호의 모습.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전문 장례지도사들로 구성된 의전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례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관련시설과 편의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운구에서 발인까지 ONE-STOP 토탈장례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과 조문객 여러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출동

부민장례식장
상담전화 064-742-5000

중앙병원장례식장
상담전화 064-721-1000